

출판도시 건설과 한국출판의 미래

'산업'과 '문화'의 조화 가능케 하는 출판진흥 프로젝트

김형국

서울대 교수 · 도시계획

출판산업이 됐던 출판문화가 됐던, 우리 출판의 미래를 살펴보자면 현재의 위상, 이 위상이 있기까지의 과거를 살펴보는게 순서이다. 출판의 현주소를 바라보면 착잡한 마음이 먼저 생긴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이다.

자랑스러움은 역사공부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인류문명은 역사를 기록할 수 있고부터인데 그 기록의 기술을 비약시킨게 바로 인쇄술의 발명이 아니겠는가.

역설이라면 역설이겠지만,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처음 만든 나라는 갖고 있지 않은 세계 수준급의 인쇄박물관이 독일의 마인쯔시에 있다. 서양에서 처음 금속활자를 만든 구텐베르크를 기념하는 박물관이다.

금속인쇄의 종주국이 갖지 않은 인쇄박물관을 후발 독일에서 갖고 있음은 발명국의 영예를 계속 이어오고 늘어오지 못한 우리의 역사적 지체를 상징한다. 문명발달사를 적은 책을 보면 고려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임을 어김없이 지적하면서도 활자가 인류의 보편적 문화자산이 된데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이후 서구의 인쇄문화 덕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인쇄술은 불경을 보존하기 위한 왕족, 귀족 등 특수계층들의 폐쇄적 전용물이었는데 견주어, 독일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인쇄술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교육용으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출판이 요구하는 합당한 공간적 틀

살아서 활기있게 뻗어가는 문화는 거기에 합당한 공간적 틀을 만들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서방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도서 전시회가 마인쯔의 뉘른베르크에 해당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것은 인쇄문화의 역사가 오늘의 현실과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증거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를 다녀 본 사람들은 인쇄문화 최초 발명국의 체통이 말이 아님을 통감한다. 그 도서전시회는 세계유수의 출판사가 뒷세를 누리면서 좋은 전시공간을 넓게 선점하고 있다. 우리의 형편은 외진 곳에 좁은 칸을 겨우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웃 일본에 비교되면 그 초라함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역사는 화려했으나 오늘의 현실은 거기에 크게 못미치는 현실은 우리 독서문화의 수준이 원인이자 결과라 보아진다. 출판문화는 곧 독서문화인데 우리의 독서문화는 문화국민이라 자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 문화수준의 한 단면인 독서문화는 실용성, 실익성 위주이다. 읽어서 당장 실용에 도움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문화이다. 집, 자동차, 증권, 요리 등에 대한 책이 잘 팔리고 또 출세를 자극하는 책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다. 문화발전단계를 따져본 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저급취향문화'수준이다. 저급취향문화적인 독서수준에서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없고 읽히지도 않는다.

저급취향이 아닌 보다 수준 높은, 우리가 지향해야 마땅한 독서문화는 독서 그 자체가 기쁨이고, 휴식이고, 삶의 충족인 그런 경지이다. 리더스다이제스트 같은 책에서 압축해 놓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거기서 읽은 내용 가운데 흥미있는 대목이 있으면 그걸 본격으로 다른 책을 찾고 구해서 읽어내는 문화이다.

실용성, 실익성 위주의 독서문화가 형성된데는 지난 한 세대동안 우리가 오로지 절대가난을 벗기 위해 경제에만 골몰하던 풍조의 산물이다. 성장이 지상가치이던 시대는 출판문화, 독서문화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되지 못했다.

성장의 시대는 바로 수출입국의 시대였다. 그런데 출판은 '경제'도 아니었고, '산업'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 그래서 수출입국에 출판이 기여할 바 없다고 치부되었기 때문에 정책 지원은 기대도 할 수 없던 처지였다.

출판산업에 대한 정책적 소홀은 출판의 역사적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 세계사적으로 출판문화의 기저는 저항문화였는데, 개발독재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온 역대 정권이 출판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질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출판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 세대동안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판산업이 세계 10대 출판국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출판산업이 영세성이 특징임에도 오로지 자생력 하나로 생산 외형에서 세계 굴지의 나라로 등장한 것은 한마디로 경이이다. 경이적 성취가 가능했던 까닭을 찾자면 고작 우리의 높은 교육열 정도



199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출판도시 건설은 출판행위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완성해낼 수 있는 한국출판의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서 찾을 도리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어쨌거나 출판산업의 외형이 세계적 대열에 있을 정도이면 그 외형은 앞으로도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 신장될 것이고, 한편으로 질적 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처할 상황도 이런 낙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인 민주화가 출판산업의 성장과 출판문화의 수준을 높여 줄 것이다. 민주화의 역사적 대세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도모할 수 있는 매체의 대표자는 바로 출판이다.

민주화는 또한 다원화와 동시병행이다. 절대가치의 지배가 아니고 다양한 집단의 다원적 가치가 각기 정당한 시각과 주장을 갖는다. 시각과 주장의 표출은 출판이 중요축매이다.

출판산업의 앞날을 밝게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문명발전단계론과 관련되어 있다.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인데 정보사회는 앞선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가장 값진 재화가 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의 생산, 유통, 확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출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때문에 출판산업은 다가오는 정보사회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하나이다.

출판도시 조성의 사회적 정당성

출판이 경제성장시대에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도 지금까지 양적 확대를 이룩해온 자생

력, 그리고 상황은 달라져 민주시대, 정보시대의 선도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된 시점이라면 이제 산업이자 동시에 문화인 출판에 합당한 공간적 틀을 모색해 보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런 점에서 작금에 출판인들이 수도권에 건설될 신도시 하나에 출판업종을 도시기간산업으로 형성하겠다는 노력은 사회적인 정당성이 있다.

출판이 기간산업이 되는 신도시 조성은 먼저 문제성 극복과 가능성 제고라는 양면적 의미가 있다. 문제성 극복은 현재 서울의 도심에 혼잡을 가중시키는 출판산업의 교통수요를 통제하지는 것이며, 가능성 제고는 중소기업형 체질인 출판산업의 외부경제를 높이는 것이다. 이 두가지 과제는 개별로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일거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곧, 도심에 산재해 있는 출판관련업종을 서울 외곽으로 이주시키되 그걸 일정지역에 집단정착시킴으로써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출판산업은 기획, 편집, 디자인 등의 전문적 두뇌의 도움이 필요한데 각종 전문적 두뇌는 한 출판업체의 조직 안에 모두 내부화하는 것이 창의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출판 기획 같은 '연성(soft)' 출판업무가 책을 생산 유통하는 '경성(hard)' 출판업무를 내부화할 필요는 더구나 없다.

대신, 관련 전문적 두뇌를 외부화한 채 출판 기획의 다양한 요구가 생길 때마다 외부에서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다. 다시 말해 출판산업의 집적경제는 규모경제 또는 내부경제가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출판을 신도시의 기간산업으로

삼을 경우 얻어지는 이점은 무척 많다.

출판은 인력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높고, 게다가

비공해 도시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판은

산업 이상의 '문화'이며,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문화만한 게 없다.

이미지는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에

특히 요긴하다.

관련업체간의 외부경제를 통해 제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출판관련 산업간의 기능적 연계 곧 외부경제는 전화, 팩스 등에 의해 통신연결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관련 사람들간의 면접 접촉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게 관행이다. 면접접촉에는 교통이 절대 필요한데 그게 도심속에서 이루어지면 도시사회의 혼잡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도 혼잡에서 오는 불경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출판산업의 신도시 집단이주는 출판산업체간에는 보다 효율적인 교통경제,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능적 유대증진을, 사회적으로는 특히 서울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출판도시계획은 — 정부쪽에서는 일산신도시계획으로 공칭된다 — 우리사회의 현안숙제인 수도권정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의 공간정비는 이른바 수도권의 '다핵도시화' 또는 '(대)도시안의 도시'가 정책 방향이다. 수도권의 정점인 서울을 모도시로 하여, 인근 도시들이 서울취업인구의 침상도시로만 머물지 않고 상당수준의 도시기능이 자도시안에서 자족적으로 처리되는, 다시 말해 자도시안에 많은 취업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아 출판도시의 수도권내의 신도시가 자족도시이기를 요구하는 정책적 당위에 부합된다. 출판인들의 구상에 따르면 출판도시에 이주가 가능한 출판 및 관련업체가 모두 5백개 업체에 달한다. 업체마다 평균 20인의 종사원이 일한다는데 그렇다면 총고용

인구 1만명의 파급으로 최소 5만 인구의 도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거기에 전문교육기관, 연구소, 박물관, 전시 집회 공연공간 등 출판관련 도시기능도 다수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도시라는 '이미지'가 큰 장점

출판산업의 주도로 이른바 출판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전문적 시각에서 말하면 출판산업이 신도시의 기간산업이 된다는 뜻이다. 출판산업은 정보시대에 특히 합당한 유망 도시산업이다. 인력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높고, 그 고용효과가 고소득층과 함께 저소득층에도 두루 미치기 때문에 복지효과도 높다.

출판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삼는다면 다른 이점도 많다. 도시산업 가운데 비공해산업인 점이다. 또, 다소 역설적이지만 산업 이상의 출판문화라는 사실이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문화만한 게 없다. 이미지는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에 특히 요긴하다.

출판산업이 기간산업이 되는 신도시가 수도권에서 형성되면 우리의 수도권 정비계획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우선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수많은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사례로 꼽히는 게 영국 런던 북방 80km에 자리잡은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이다. 60년대 말에 조성되기 시작한 이 신도시는 현재 인구 21만이다. 여기에 자리잡은 통신, 전자, 컴퓨터 등 240여개 업체가 8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침상도시가 아닌 전형적인 자족도시로 유명하다.

수도권의 신도시 조성에서 우리는 성공이 오히려 예외이고, 문제확산이 대부분이다. 전자의 경우는 안산시이고, 후자의 대표는 과천시이다. 안산은 반월공단을 핵으로 취업기회를 중요하게 도입한 도시인 반면, 과천은 정부종합청사가 입주해 있으나 결과적으로 취업기회보다는 주거중심도시 곧 침상도시로 만들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안산의 전체교통량 가운데 서울로 유출입되는 교통량은 불과 9.3퍼센트인데 견주어 과천의 경우는 무려 65.8퍼센트에 이른다. 그래서 과천과 서울사이의 출퇴근 차량은 아침, 저녁으로 장사진이다. 서울 행정구역내에 조성된 신도시라 할 수 있는 상계-중계지구

도 순전히 주거기능 위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특히 미아리방면에서 도심까지의 교통혼잡은 '운전자가 참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 최악의 교통상태인 '움직이지 못하는' 수준이라는게 교통전문가들의 판정이다.

과천, 상계-중계의 파오는 과거의 일이 아닌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분당, 산본, 평촌, 중동 등 인구 이삼십만 내외의 주거위주의 신도시가 서울 외곽에 속속 건설중에 있다. 지하철, 전철을 건설한다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로 자가용 출퇴근을 시도할 것이다. 그럴 경우,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분당신도시로 말미암아 서울-수원구간의 고속도로는 하루종일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점의 극복이라는 점에서도 일산신도시가 출판도시로 조성되는게 정당하다. 출판산업이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침상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속인쇄 발명국의 영예로운 役事

출판산업은 그렇게 도시경제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과연 출판을 위주로 도시문화가 거기서 꽃피울 것인가가 궁금하다. 출판은 무엇보다도 우수 두뇌가 열쇠인 도시활동이다. 저간의 출판산업의 서울집중은 그 결정적 인자인 저술적 두뇌의 서울 선호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 저술적 두뇌가 신도시에 정착까지는 기대하지는 못해도, 업무와 회합과 교류를 위해 거기로 빈번한 왕래를 할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다.

학자, 예술가 등 저술적 두뇌가 신도시로 즐겨 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는 그나름으로 근거가 있다. 다가올 정보시대의 선두주자인 이들이 서울에 머문 채 교통 대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대거 이용할 것이라 전망한다면 신도시 출입은 기대 이하일 것이다. 직업적 활동은 그런 식으로 수행하면서 서울에 계속 남기를 고집하면서 서울의 문화적 쾌적성을 향유하고자 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혀 반대의 전망도 가능하다. 수공업적인 문화인의 활동이 전자매체를 통해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더욱 필요하고 간절할 것이라는 시각도 정당하다. 이들이 해내는 정보라는 낱말 구성

에서 그 점을 진작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란 낱말은 사람의 따뜻한 '정'과 지식이란 뜻의 '보'가 합쳐진 말이다. 지식이 차가운 머리의 소산이라 하지만 그 지식이 전파되고 확산되자면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주체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의 정감이 필수적임을 간파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미래학자 네스빗(Nesbitt)도 같은 전망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가 고도기술로 특징지어질 것이지만 그 고도기술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주인인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고도감성(high touch)이 필수적이라 했다. 고도기술과 고도감성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출판도시의 우리가 경제성장시대에 익혔던 공업단지조성방식의 도시건설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공업단지는 기계와 도로 같은 하부구조만 놓고도 건설할 수 있었지만 출판도시 같은 문화도시의 사람들에게 매력, 신선감, 쾌적함을 자극할 만한 삶의 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 우리는 경제시대를 넘어 민주시대를 살고 있다. 동시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향하는 전환기에 있기도 하다. 이 민주시대, 정보시대는 문화가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출판도시 같은 세계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문화도시의 형성은 금속인쇄 최초발명국의 영예로운 역사에 걸맞는 모색이 될 것이다.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개당 제작실비 2,5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4,0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